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전개



▲ 강원도의회(의장 박상수)는 6월19~20일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제229회 임시회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강원도의회(의장 박상수)는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제22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전개했다. 또한 원태경·조영기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박상수 의장은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하고 “동북아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GTI 국제무역 투자 박람회와 지난 6월 9일 성황리에 개막 되었으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가 활성화 된다면 환동해권의 경제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했다.

6월 19~20일 이틀간 8명의 도의원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나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펼쳐졌다. 특히

이번 질문에서는 지난 5월에 개청된 경제자유구역청의 추진상황, 도립의료원 제반 문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문제, 무상급식과 관련한 대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강도 높은 질문이 이어졌다. 첫날 질문에는 김동일(철원)·곽영승(평창) 김양수(양양) 김세영(교육)의원, 둘째 날에는 김원오(동해)·남경문(정선) 손석암(태백) 김성근(속초) 의원이 각각 나섰다.

상임위원별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의결

의결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곽영승) 소관 ▲2013년도 공유재

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남경문) 소관 ▲강원도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창욱) 소관 ▲2013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등이다.

주요내용

-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2, 3면
- 최문순 도지사 도정질문 답변요지4면
- 민병희 교육감 교육행정질문 답변요지 ...5면
- 도의회-동카자흐스탄주의회간 교류협정 체결 ...6면
-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7, 8, 9면
- 도의회 의회운영·기획행정위 활동10면
- 도의회 사회문화·농림수산위 활동11면
- 도의회 경제건설·교육위 활동12면
- 사진으로보는 의정 이모저모13, 14면
- 강원도의회 의원동정15, 16면

도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강원도의회가
2013년 6월 12일부터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핸드폰 검색창에서
강원도의회 또는
<http://m.council.gangwon.kr>을 입력하시면
강원도의회와 만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

2차 본회의 / 2013. 6. 19(수)



김 동 일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철원군 제1선거구

- Q** 강원도 풀뿌리기업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218곳이 지정됐다. 2011년도부터 강원도 관심으로 많은 기업이 선정되었지만 늘어난 만큼 사후관리 등 쉽지않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풀뿌리기업 선정 증가로 인한 조직, 사후관리, 교육 등의 대책은?
- Q**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건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육과 문화 행사 등을 접할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체육·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방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하는데,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이 저조하다. 체육·문화 행사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주겠는가?
- Q** 강원도 동해안 어항의 가판장이나 어구 쪽을 보면 상당히 어수선했는데, 도시민들의 욕구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 대책?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예산 등 확대 지원방안은?
- Q** 강원도내 초중등학교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관리 운영방법에 따라 학생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장기계획 관리전환 방안은?에 따른 장기계획 관리전환 방안은?



곽 영 승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평창군 제2선거구

- Q** 동해안경제자유구역 MOU건, 지난 3월 보도에 의하면 투자계획이 없는 회사가 13개, 영업허가가 취소된 회사가 2개, 연락이 안되는 회사가 2개, 심지어 비영리 단체까지 전부해서 22개회사, 또 일본에 직접 가서 4개 회사랑 1,153억 원의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4개 회사중에 지금까지도 투자의향이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고 투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 Q** 강원랜드는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 주민들의 땀과 눈물, 절체절명의 호소 이런 것 위에 설립한 공기업이다. 강원랜드의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정부가 수익금의 7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바, 2대 주주인 강원도를 포함한 폐광 4개 시군에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Q** 강원랜드 이사진을 보면 전무, 감사 등은 항상 강원도 몫이었다. 지금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딱 한명인데 자연현안이라든가 강원도민의 민원이라든가 협조가 잘 안된다. 우선 전무나 감사를 우리 강원도가 찾아와야 하는데?
- Q** 강원도 조례가 한 300건 되는데 유명무실한 조례가 수십 건이다. 예를들면 강원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마이스산(MICE)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했는데 추진 안하고 있다. 도청이나 도개발공사에 마이스산업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데?



김 양 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양양군 선거구

- Q**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의 민병희 교육감님 철학이 담긴 강원교육이 새롭게 시작된 지 3년이 되었는데, 공약 관련해서 이행된 것과 부족한 것이 있다면?
- Q**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인권조례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임법예고기간에 들어온 의견이 임법절회를 주장한다면 구체적으로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한 조항은 어떤 조항인지? 지금까지 교육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동안 소통을 자주 안했는지?
- Q** 농어촌 학교 근무 가산점 규정과 관련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 이전과 무관하게 가산점을 주게끔 바뀌었는데 그전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않고 근무한 분들에 대한 구체적은?
- Q** 강원도립대학은 총장 취임 후 교수 승진이 없었는데 구성원들에 대한 업무미숙 아닌지, 도립대니까 예들들어 취업률을 승진가산점에 한 50% 정도 넣는다면 변별력이 생길 수 있겠지요?
- Q** 해수욕장 도유림 관리와 관련하여 동해안은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우리도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이 도유지가 해발 0m의 임야로 되어 있는데 방치한 이유?



김 세 영 의원
교육위원회 / 교육 제5선거구

- Q**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 개인들에게 4등급으로 구분되어 통지되었고 지역별로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미달 3등급으로 제공됐다. 기초학력이 2011년도에 0.9%로 세 번째로 높게, 2012년에는 1.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강원도교육청 기초학력미달 등급의 평균 비율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높은 이유?
- Q** 선생님들이 실험·실습할 곳이 없어 타 학교의 과학실을 빌려 쓰고 있는 형편으로 이는 강원 과학교육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Q**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공문에 의하면 정규수업시간 수준별 이동수업과 수준별 반편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과 앞으로 개편된 수능시험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 Q** 중·고등학교에서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을 경우 학교폭력이나 자살예방, 학력향상 지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Q** 매년 반복되는 교육청과 강원도, 시군분담의 무상급식분담비율 조정에 행정적, 시간적으로 낭비라고 판단되는데 17개 교육청의 평균을 내서 강원도교육청과 도의 퍼센티지를 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면 어떤지?

3차 본회의 / 2013. 6. 20(목)



김 원 오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동해시 제1선거구

- Q** 석면피해 관련해서 석면처리,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게 아직까지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 정확한 매뉴얼도 없고 주먹구구식이다.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 않겠는가?
- Q** STX발전소하고 경자철이 25m 사이를 두고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는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물론 발전소가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도록 운영한다고 하지만 역대 어느 발전소든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발전소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망상 플로라시티, 원주 화훼단지가 상충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Q** 동해항에서 북방 물류의, 북방항로의 모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의가 석탄물류를 다루기 위해서 추가 확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북방항로는 컨테이너가 70% 되는 물류를 다루는 건데 항만 확충계획하고 부합하는가? 동해항은 결국은 북방항로의 물류를 다룰 수 있는게 아니라 영동지역의 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갖다 놓으려고 항만 확충계획을 하는 거라면 승인하겠는가?
- Q** 한강수계기금이 배정된 내역을 보면 강원도가 18.3%이다. 한강 수원은 전부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용은 전부 수도권이 하지 않는가? 규제는 가장 강하게 받으면서 주민지원사업에 왜 이렇게 소외되는지?



남 정 문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정선군 제2선거구

- Q** 1999년 강원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로 인한 국비 일부 지원에 따른 통합 상수도관망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환경관리공단이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들한테 적기에 대금 지급이 안되어 파산되었는데 어디 문제인가?
- Q** 고한리 만항지구에는 과거 우리나라 산업역군들이 자연부락을 만든 곳으로 사찰립이다 보니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향후계획? 향후에 혹시 대지로 변경이 된다면 문제가 되었을 때,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임대료의 상승이라든가 어려움이 온다면 차라리 그것을 변경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검토하고 처리해 주었으면?
- Q**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지방재정확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결론을 놓고 보면 법제화의 난이도, 조세법령주의의 타당성, 한시적 자금 활용의 용이성,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한시적 활용 방안이 최선책이라고 제시했고 차선책으로 레저세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최선책으로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레저세 신설로 인해서 강원도의 득과 실은?
- Q** 강원개발공사의 강원랜드 2대주주 권한과 강원도 입장?



손 석 암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태백시 제2선거구

- Q** 태백시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하는데 상장초등학교는 특별교부금 9억, 탄계비에서 6억이 지원되고 교육청과 태백시에서는 10억원도 지원이 안되었다. 어렵지만 교육청에서도 한 2~3억 해 줬더라면 보다 더 나은 체육관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황지여중도 계획상으로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집행 계획이 없다. 교육청과 태백시가 서로 협조를 하면 좋은 체육관을 지어서 지역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 Q** 태백지역에 교육문화관을 하나 설립하겠다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뚜렷하게 설정해 주시면?
- Q** 지방도 신리제(구사리제) 터널이 10km도 안 되는 도로가 2002년도에 발주를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아는데 12년이 다 걸려서 되겠는가? 2004년부터 시작된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으로 한 500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이사업이 작년까지만해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내대지에 건축을 해도 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5,000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태백의 경우 외지인구 유인책으로 외지분들이 새로 집을 지으면 지원해왔는데 방침이 변경된 이유?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 Q** 2018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전체가 반기고 축하를 하고 성공올림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는데 강원도민들은 크게 공감하지 않는다. 동계올림픽 사업 관련 지방비 25%에 대한 확보 방안은?



김 성 군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속초시 제1선거구

- Q** 미시령 본 구간은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으로 도로시행법 30조 규정에 따라 공사비는 국비로 보조받아 추진했으나 일부는 민자로 시작되었다. 미시령터널의 통행료가 그동안 몇 번 인상되었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 강원도와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의 협약서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협의를 하는지?
- Q** 65억이라는 막대한 적자가 난다고 강원도에 자꾸 압박을 넣으면서 1년에 한번씩 계속 통행료 인상을 시켜 달라고 압박을 가하는데, 전년도 2012년도에 인상요구를 하고 2013년도에 또 들어왔다. 우리 강원도민, 4개 시·군 주민들 어떻게 보고 하는지? 문제점을 이해하는가?
- Q** 전년도 총매출액이 148억인데,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다 가져가고 적자폭이 많이 늘어났다며 우리 강원도에 전년도 65억 적자라고 보고를 했다. 또 강원도와 미시령터널주식회사간 도로관리 경계가 정확히 지켜지지 않아 강원도에서 일부 구간을 공짜로 관리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계약 변경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Q** 전국의 통행료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미시령터널이 제일 비싸다. 우리터널과 유사한 문학터널은 인천에서 813억 투자해서 통행료가 800원, 원적산터널이 1,127억 투자 1,100원, 우산면터널이 1,402억 투자 2,500원이다. 2,335억 투자한 일산대교는 지금 우리와 똑같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100원 받고 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이대로 나눌 것인가?

최문순 도지사 도정질문 답변요지



최 문 순
강원도지사

6월19일 제2차 본회의

김동일의원 질문에 대해

▲도내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행사 예산 지원에 대해 =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행정의 사각지대였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체육·문화행사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풀뿌리기업 선정 증가로 인한 조직, 사후관리, 교육 등 대책은 = 마케팅이라든지 판로 확보라든지 기술 개발, 또 회계 처리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진흥원도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고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안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풀뿌리기업들 이런 것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지역에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업무인력을 늘리고 기능을 다양화해서 좀 더 사회 경제 주체로서 제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

▲강원도 동해안 어항의 쾌적한 환경 조성, 내수면어업 활성화 위한 조직·예산 등 확대방안 = 단순히 생업 중심인 어항이 도시형어촌으로 변모 하면서 순수한 어촌이 아니고 관광과 접목되는 그런 곳으로 변모되기 때문에 어항 자체가 작은 관광지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복합어촌항을 만들도록 유도해 가겠다. 또한 민물고기 자원센터와 관련해서는 기능이라든가, 건물, 시설, 아주 전체적인 6차 산업이 되도록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곽영승의원 질문에 대해

▲강원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의 MOU가 전체 128개 기업인데 실제 투자업체 및 향후 계획 = 실질적으로는 투자 MOU를 맺은 게 아니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생긴다면 투자할 의사가 있겠느냐, 혹시 하겠느냐 이런 여론 조사의 성격이었다.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을 기업들은 아주 비밀리에, 그게 공개되면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사회를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는 극비리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MOU 자체가 투자로 이어질 거라고는, 제도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기업을 잘 모르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각오로 하겠다는 약속을 올린다.

▲강원랜드 설립목적은 폐광지 살리는 것인데 2대 주주인 강원도를 포함, 폐광 4개 시군에 수익금이 돌아가야 하는데 견해와 강원랜드 이사진을 강원도 몫으로 =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사진도 전부 중앙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다.

▲강원도 조례가 한 300건 되는데 유명무실한 조례가 수십건이다. 사장되고 있는 조례를 제대로 추진 = 조례 전반을 전부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 미시령터널 통행료 문제점검 · 유명무실 조례 재검토

김양수의원 질문에 대해

▲강원도립대학 학과 통·폐합, 교수승진 등 운영 전반 = 바람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교수님들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해 재청을 해서 교수님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폐과가 된 과에 대해서는 신분상 또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을 최대한 보장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어느 과 못지않게 하겠다.

▲도립의료원의 적자가 44억 정도인데 감당할 수 있는지는 강원도 예산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44억이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현금 적자가 44억이 아니라 감가상각비가 50억이 있는데 그것이 포함된 것이라서 작년에는 50억이 지원되어서 실제로 손익은 현금상으로는 사실 흑자가 난 셈이다. 진주 의료원이 2월 26일 폐업발표, 폐쇄 발표를 하고 난 이후로 전국이 공공의료나 아니면 적자의 문자나 이런 것

들로 아주 들끓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의료원의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세영의원 질문에 대해

▲무상급식분담비율을 조례로 제정 =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제도 시행조기이기 때문에 분담비율을 확정적으로 정해 놓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국비지원 문제라든가, 또 시·군의 여건, 내년도에는 고교급식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런 변동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적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가급적 서둘러 빨리 협의해서 분담비율을 조정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

▲도립대학 발전과 관련, 2014년도에 70개 대학을 선정해서 육성한다는데 준비 = 전국총장협의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사전에 알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과연 어느 것이 낫나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단일 산업 분야에 대한 대학 전체 특성화, 복수 산업분야에 대한 대학의 특성화 등 우리 전문대학을 특성화해서 2017년까지 15만 명 인력을 배출하면서 80% 이상의 취업률을 내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열심히 해서 꼭 지정이 되도록 하겠다.

남경문의원 질문에 대해

▲상수도 선진 광물사업 진행상황과 문제점, 향후계획 = 환경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 상수도망을 발주한 하도급 업체에서 폐업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있다.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원 도급업체에서 해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 유사한 피해가 있는지 관심 갖도록 하겠다.

▲고한1리 만항지구 자연 취락지구 지정 등 현재 상태와 향후계획 = 탄광지역의 어려운 영세민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락인데 지금 현재 국토법상에는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으면서 산지관리법에서 사찰림은 보전산지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보전산지인 사찰림이 해지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절차가 남아있다.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도움이 된다면 노력하겠다.

▲레저세 도입과 관련하여 득과 실 = 득실이 많다. 현행대로 한다면 득은 레저세 연간 1,200억, 교육세 480억, 반면에 보통교부세가 700억원이 줄고 폐광기금 배당금해서 별로 남을 게 없다. 폐광 4개 시·군에도 도움이 되고 강원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서 공동 노력하겠다.

손석암의원 질문에 대해

▲신라재(구사리재)터널 공사 지연 이유 = 터널도 터널이지만 사면보강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공법들이 많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관련 인구유입정책으로 나대지에 건축하는 외지인에 대한 지원 = 방침이 중간에 바뀐 것은 확인을 못했지만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기존의 주택 소유자중 불량주택을 신·개축하는 부분에 대해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5,000만원 융자, 900만원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의 시책이 점진적으로 잘 운영되고 또 개선되어야 한다면 충분히 검토 하겠다.

▲동계올림픽 사업 관련 지방비25%에 대한 확보방안 = 레저세, 관광기금, 국비확보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가능하면 우리 도민들께 가는 피해가 적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성근의원 질문에 대해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의 문제점 =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점검을 해보겠다. 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용역을 주어서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근거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을 재정리하도록 하겠다.

6월20일 제3차 본회의

김원오의원 질문에 대해

▲STX화력발전소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바로 옆에 있는 환경에 대해 도의입장과 경제자유구역청 토지허가구역 문제 =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토지허가구역 문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하겠다.

▲동해항의 북방항로 모항지정 문제점과 대책 = 화물도 석탄을 비롯해서 석유 등 많은 화물들이 왔다갔다 하게 되어 있다. 1년에 하나로 시작해서 두 개, 세 개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방항로를 포기하고 있을 상황도 아니다. 동해항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강수계 기금배정기준 등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잘 살펴서 챙겨보도록 하겠다.

민병희 교육감 교육행정질문 답변요지



민 병 희
강원도 교육감

6월19일 제2차 본회의

김동일의원 질문에 대해

▲강원도내 초·중등학교 냉·난방기 운영 관련 = 학교 단위별로 도교육청에서 매뉴얼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냉·난방기가 설치된 682개 학교 중에 80여 개 학교는 위탁관리를 하고 나머지 600개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침상에는 한 달에 한번, 또는 6개월에 한번 해서 사용주기 및 사용시간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한번 하고 실내 먼지 청소는 6개월 전후로 한 번씩 하고 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환경은 사실 최소한 가정보다 같거나 나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용역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박영승의원 질문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관련 = 성적이 얼마 이상 보다는 발전이 된 아이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발전 의지가 강한 아이들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도록 하겠다. 우리 교육청은 단서를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이걸 처음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여건이 좋은 아이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열도록

노력하겠다.

김양수의원 질문에 대해

▲강원교육 공약관련 = 거의 다 도민들께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하고 있다. 다만, 의회의결이 안된 미흡한 것은 조만간 협조를 구해서 마저 처리하도록 하겠다.

▲학생인권조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 처음에는 학생인권조례로 공약을 했다. 우선 헌법이 있고 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그리고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입안했고, 2013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다. 그 기간에 의견제출 기관 및 단체를 보면 일단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강원교총에서의 견을 주었고 제출의견은 입법철회 요청이었다. 그리고 강원기독교연합회 외에 9개 시·군, 38개 교회에서 조례 제정 반대성명서가 있었다. 교육부나 교총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어긋난다는 것

이들이 늘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김세영의원 질문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미달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높은 이유 =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라든지 소위 일제고사형 평가에서 성적을 다른 시도보다 높게 올리는 방법은 알고 있다. 그런데 무리한 그것은 제가 보기에 무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도 성적도 좋았으면 참 좋겠다. 최근 보도되는 바와 같이 어느 시도에서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없으면 90만원을 주겠다는 그러한 것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결과를 지켜봐 주시고 타 시도와 비교하지 말고 저희 자체 비교를 했을 때는 2010년 3.4%에서 2.9%, 2.7% 점점 해마다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 개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 또한 중학교 향상도는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즉 일제고사와

진되면서 답답 역할을 맡길 사람이 늘어나면서 생긴 경우가 있다.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다.

▲초·중·고 학생 불량씨를 성폭력 관련 생활지도에 대한 견해 = 다행스럽게도 제 재임기간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없었는데 고위험군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을 기 하겠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몽둥이를 내려놓으라고 했더니 교육을 내려놓고 법만 들고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도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면 학폭위 문제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만 발생하면 학폭위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다.

▲과학교사 연수를 타 학교의 과학실을 빌려쓰고 있는 형편인데 이에 대한 견해 = 교육과학정보원에 시험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내년 예산에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다.

6월20일 제3차 본회의

손석암의원 질문에 대해

▲태백시 다목적 체육관 시설 지연 이유 = 황지여중의 예를 든다면 지금 태백이 7억, 교육부 특교가 28억 해서 35억짜리 큰 체육관을 지금 계획 중인데 말씀하신 바대로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매칭한다. 태백은 어렵기 때문에 20%만 책정을 해서 7억인데 이것이 지금 안들어 왔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매칭을 요구하는 것인데 교육장이나 실무자가 가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태백시 교육문화관 설립추진에 대해 =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교육문화관을 설립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총액인 건비라든지 현재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설립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먼저 태백 교육문화관설립추진위원회 쪽에서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고 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건이 올라오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 기초학력 수준향상 노력 · 학교인권조례 조만간 통과되도록

인데 그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안을 고쳤고, 또 기독교단체에서 얘기했던 것은 성적 소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규정에서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또는 성적 소수자 학생과 관련된 규정을 임신과 출산을 조정하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주상하셔서 이 조항을 협의 과정에서 뺐다. 추진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 즉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포함한 그러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조례로 일명 '학교인권조례'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했지만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교육위원들께서 학교인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므로 조만간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학교 인권조례에 관한 문제는 더 궁극적인 것은 학교 문화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생활협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 아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강원도가 교육과정 파행이 심했다.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교육을 치르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조만간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

▲공교육 활성화 입장에서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이 불가피한데 교육감 견해 = 새정부의 교육정책 흐름이 꿈과 끼를 실현시키는 교육,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교육으로 중심을 잡았고 저희 교육청도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그렇게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한 견해 = 아무래도 정규교사보다는 기간제교사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공감한다. 현재 도내에 2.9%가 기간제교사가 답임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정기교사 임용이 안됐기 때문이다. 2012년도에 복수담임제가 추

도의회-동카자흐스탄주의회간 교류협정 체결



▲ 강원도의회(의장 박상수)는 6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동카자흐스탄주의회(단장 핀추크 그리고리)와 우호교류협정 체결식을 갖고 다각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도의회(의장 박상수)는 6월 11 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동카자흐스

탄주의회(단장 핀추크 그리고리)와 우호교류협정 체결식을 갖고 다각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카자흐스탄주의회 핀추크 단장 등 방문 대표단 8명은 6월 8일 내도 하여 강릉 GTI 국제박람회 개막식에 참관하고, 평창알펜시아, 오죽헌, 참소리박물관 등 도내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박상수 의장은 “이번 동카자흐스탄주의회와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을 통해 두 의회간의 상호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고유한 풍속과 전통, 빼어난 문화를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의회 박상수의장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강원도의회 박상수 의장은 6월28 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상수 의장은 강원도의회 제6·7대 도의원과 제8대 의장직을 역임하면서 집행부의 견제·감시역할에 충실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섰으며, 특히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각종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강원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동계특위 중앙부처 방문, 전폭적인 지원 촉구



▲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봉)는 12일 중앙부처 방문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봉)는 6월 11~12일 이틀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정부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방문하여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캐나다 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자료수집과 함께,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강릉·평창·정선 등 개최지 3개 시·군 특위 위원장도 동행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힘을 보탰다. 향후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개최지 3개 시·군 특별위원회와 함께 동계올림픽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간담회 개최 및 현장방문 실시 등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원태경의원 ‘2013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선정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부위원장이 시사 종합 월간지 뉴스메이커가 선정한 ‘2013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에 선정됐다. 최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모바일 게임센터의 강원도 유치를 제안하는 등 예술적 특성과 미래 문화 콘텐츠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지방정치 부문’ 수상을 했다. 원태경의원의외에 함께 선정된 인물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다.

접경특위 6.25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방문



▲ 접경지역발전특위(위원장 방승일)는 28일 인제군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했다.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방승일)는 6월 28일 인제군 광치령 일원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여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유해발굴 현장방문은 정전 60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산화한 6.25 국군 전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 보고 호국영령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인제군 상가를 방문하여 접경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지여론을 수렴해 DMZ 정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제군 광치령 일원 유해발굴 사업은 오는 7월 26일까지 실시되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비롯해 3군단 및 제2사단 등에서 모두 80여명의 발굴인력이 투입된다.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세계평화공원 관련하여

제229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3. 6. 12(수)



김 동 일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철원군 제1선거구
새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중 미 의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시한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 구상 발표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휴전상태로 지금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60년 세월 동안 살아온 우리에게 남북간 긴장완화와 남북간 평화, 남북 상호간 신뢰에 도움이 될 기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를 전제로 한 상호 공존정책을 대환영하는 바이다.

혹자는 과거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평화시 건설구상과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디엠제트 자연공원 제안 등이 실제로 추진되지 못했던 예를 들어 과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한 국가의 지도자의 철학과 주변 국가정세를 보았을 때 비관적인 것만

은 아니라 본다. 또한 이번 구상은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남·북한뿐만 아니라 UN과 국제사회 등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점이 과거와 다른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런 시점에 세계 디엠제트 평화공원 구상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디엠제트라는 공간을 평화공원으로 만들고자 시작한 것만은 사실이다.

디엠제트 공간에 남·북 길이 열린 곳이 있고 닫힌 곳이 있다. 현재는 모든 길이 닫혀 있지만 지속적인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길이 다시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이에 한반도의 중심과 길 중심에 있는 철원은 세계평

화공원을 통하여 동서남북이 함께 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심장부가 되어야 한다.

철원의 평화가 한반도의 안녕이자 세계의 안식이 된다는 잠재의식들이 철원을 세계평화공원의 적지로 여겨진다. 순수 평화만 놓고 보면 한반도 어디든 가능한 곳이지만 지금의 남북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이젠 모두가 노력하여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곳이 바로 철원이다.

강원도에서 설치한 「철원평화문화광장」이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고 준비한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 더 큰 세계평화공원 철원 유치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최문순 지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자율방범대에 관하여

제229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3. 6. 12(수)



이 학 년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비례대표
우리나라는 6·25 이후부터 내 마을

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야경꾼이 구성되어 야간에는 '도둑조심', '불조심'을 소리를 내면서 골목순찰을 돌았다. 그 후 각 과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바뀌면서 방범대원들과 방범위원회도 전부 해체가 되고 맙니다. 다시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현재 강원도에 8,548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있다.

최근 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로 불리우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범죄는 공원, 골목 등 치안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이다. 이른바 '민생치안'의 문제가 경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 지역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 활동, 범죄발생 시 신고 및 경찰지원 활동, 긴급상황 발생 시 현지활동을 분담하는 역할로 지역 치안에 큰 기여를 해왔다. 따라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자율방범대의 헌신적인 활동과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강원도가 자율방범의 개선에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 강원도의 정책적 관심을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방범대원들 순찰차량 지원 시 방범대원들에게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해서 교체시기가 돌아와도 차량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교체 시 전액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대원들이 입고 순찰하는 복장도 3년에 1벌씩 지급이 되던 것을 1년에 하복

과 동복 각 1벌씩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자율방범대원의 모집과 선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선발규정을 체계적으로 하고 선발된 대원은 경찰관으로부터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행정 협조와 예산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사기진작 방법을 확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범 자율방범대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혜택 등 근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우리 강원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게끔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북극항로 모항지정, 강원도의 역량결집이 필요하다

제229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3. 6. 12(수)



권 혁 열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강릉시 제4선거구
미국 지질조사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극은 원유 900억 배럴, 천연가스 1,669조 루배, 액화천연가스 4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으며 구리, 철광석, 금 등 고부가 광물자원을 비롯해 10년 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35% 이상을 가진 한마디로 지구의 마지막 보물창고이다. 2025년 이후엔 지구온난화로 겨울철 1.52℃에 달하는 북극해 빙하가 그해 9월 여름철 340㎞로 줄어들면서 뱃길이 열리게 된다.

강원도는 그동안 국가정책지원 소외 속에서도 이미 속초~러시아 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을 잇는 북방항로 개척에 힘써 왔다.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정책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방지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

을 이제 국가가 해주어야 할 때다. 그것은 바로 강원도 향후 100년 성장 동력이 될 북극항로 모항 지정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한 강릉, 동해, 묵호, 속초항의 기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 투자의 적기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과 울산항의 장점들과 강원도 동해안의 장점들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원원 전략'을 국가가 제시해야 한다. 우리 도민들이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놀라운 역량을 북극항로 모항지정에 한 번 더 보여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린다.

첫째로 북극항로 개설과 모항 지정에 따른 우리 강원도의 당위성과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우리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서명운동 등 도민들의 뜻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북극항로 모항지정을 위한 해양, 항만, 물류 등 해양수산정책 전반을 관장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동해안 6개 시·군, 환동해본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끝으로 강원도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희망실현을 위해 강원도 동해안 북극항로 모항 지정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소양강댐 상류지역 흙탕물 유입과 관련 강원도의 대책은

제229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3. 6. 12(수)



고 춘 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홍천군 제1선거구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양강댐 상류지역의 흙탕물 저감 대책의 현 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양강댐의 물이 2006년 7월 태풍 때 양구, 홍천, 인제 등 강원 영서 내륙에 집중호우가 내려 상류에서 흘러든 토사로 인해 흙탕물이 된 뒤 2007년 3월 까지도 본래의 수질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탁도가 평상시의 4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춘천시민의 상수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소양강댐 수질문제가 이슈화되자 정부는 2007년 3월 21일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환경부, 건설교통부, 강원도 등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2013년 까지 모두 3,859억 원을 투입하는 '소양강댐 탁수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고령지발 비점오염저감사업, 담구역 숲가꾸기사업 등 상류 하천에 토사

가 흘러드는 것을 줄이기 위한 9가지 유역대책과 발생한 흙탕물을 신속히 하류로 빼내기 위한 4가지 댐내대책을 시행해 2013년까지 토사 발생량을 31% 가량 줄일 계획과 또 도로공사 토사유출 기준을 강화하고 고령지발의 객토사업을 억제하는 등 10가지 관리대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23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 지역구인 홍천군 1개면 6개리 447km, 양구군 3개 읍면 12개 리 143km, 인제군 6개 읍면 41개 리 1,636km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금년도에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사업이 100% 완료되는 해이다. 또한 금년도까지 3,859억 원이 투입되어 사업이 마무리 단계

가 되어야 한다. 개발과 보존이 적정히 이루어져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허가함에 있어 허가부서와 탁수저감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길 바란다.

토사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사지 지역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저감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과감하게 개인 소유의 토지나 임야를 국가에서 매입하여 국유화 조치 후 나무를 식재하거나 휴경지로 관리하고 일년생 채소는 지양하되 다년생 작물을 개발하여 대체 작목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완공된 비점오염원사업저감 시설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파악, 보완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와 관련

제229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3. 6. 12(수)



구 자 열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원주시 제4선거구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SOC 투자 축소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보여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전폭 지지한 강원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에 국가 재정을 신규 SOC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강원도 주요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원주~여주 복선전철'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동서고속화철도는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라 두만강지역 개발 등 미래 사업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 역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기간망 사업에 우선 포함해야 한다.

둘째로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에 대해 지원 하는 입지보조금을 2015년까지 단계적

으로 전면 중단하고, 현행 투자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입지보조금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유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입지보조금 지급이 있었기에 그나마 19%나 되는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각 기업들이 자신에 맞는 지원금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폐지'를 전면 재고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셋째로 정부는 지난 4월 26일 차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 내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그리고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원안의결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우리나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심화시켜 우리 후손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및 신설을 가능하게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

이제부터라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종합계획과 구체적인 이행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의 가치를 살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강화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지역의 SOC 확충에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동계올림픽 예산과 관련하여

제229회 임시회 / 4차 본회의 / 2013. 6. 21(금)



원 태 경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춘천시 제3선거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

제는 성공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지구촌을 감동시키고 평화의 상징으로 묶어낼 숙제만이 남아있다.

아울러 우리 도가 확보하여야 할 예산규모가 경기장 건설과 접근도로 건설비용으로만 국비 7,731억원을 포함하여 약 1조54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비 2814억원)

이 외에도 막대한 예산이 곳곳에서 사용처를 기다리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사정과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SOC관련 정책 기조를 지켜보노라면 이미 빨간불이 켜져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로또복권을 조속히 발행하여야 한다

는 제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복권발행 시장의 규모는 1년에 약 4조원정도 된다. 그 중 약 40% 정도의 수익금으로 지자체,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 체육진흥 재단, 각종 복지관련 기금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이 규모는 우리나라 GDP수준의 약 0.2% 규모로 선진국 평균 수준인 0.4%의 절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아직 우리나라 복권관련 시장 규모는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참고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네덜란드의 반 고흐 미술관 등이 모두 복권기금으로 만들어 낸 유산임을 밝히고자 한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비교적 국민적 저항이 적은 가운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할 때

복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정책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강원도의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각오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경제 올림픽, 문화 올림픽, 환경 올림픽 신화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2018 평창동계올림픽 로또복권이 발행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발행될수록 그만큼 강원도가 부담할 예산의 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국민적 관심과 홍보 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삼득, 사득 이상의 사업임을 주목해 주길 바란다.

2018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강원도가 함께 모든 동력을 재무장 하시기를 도민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진흥기금 확충에 대하여

제229회 임시회 / 4차 본회의 / 2013. 6. 21(금)



권혁열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강릉시 제4선거구

그동안 해상에서 조업중 불의의 사

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 도는 어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어업인 가족들의 생계와 복지를 위해 현재 20억원 규모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2,024세대에 5억 7,300만원을 유가족 자녀학비와 생활안정비, 명절위문품비 등으로 지급을 했는데 도비는 지금까지 기금운영 첫해에 9,600만원 뿐이고 조성된 기금 이자가 8년간 4억 7,700만원이다.

어업인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지원

의 대부분이 기금 이자 수입이다. 문제는 지급대상 유가족이 322세대로 연간 8,5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하락으로 2010년부터 기금이자수입이 년 8,2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감소했다. 현재 상태라면 올해 기금의 이자수입은 6,200만원인데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8,400만원으로 2,200만원이 부족하다.

단독조업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어업인은 대부분 노년층으로 생활경제력이 부족하여 장비 현대화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매년 조업중 연 평균 15명 정도가 어업인 관련 사고를 겪고 있다.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에서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교복비, 학습비 등 3억원 정도로 내년 예산에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일반회계로 확보 집행되어야 한다.

둘째, 매년 지원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은 2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더구나 금리하락까지 겹치면서 기금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재 20억원의 기금을 상향해 연차적으로 40억원까지 확대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을 도지사에서 직접 챙겨 진정한 소득2배 행복2배의 도정목표를 구현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심 촉구

제229회 임시회 / 4차 본회의 / 2013. 6. 21(금)



김금분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비례대표

저는 오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령기에 친구들과 즐겁게 뛰놀지 못하고 학교를 중퇴하여 힘

겹게 지내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6~7만 명을 육박하고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평균 연 2,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탈하고 있으며, 2~4년 이상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학업중단이 지속되면 심리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 무기력한 부모 등 가정적 기능 약화, 인터넷 중독, 우울, 자살 등의 2차적 정서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전체 청소년의 1.1%에 해당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학업중단이 지속될 경우 개인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

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령기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증가하는 기현상과 이들이 학업중단 이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입문하기까지 그들을 우리의 미래자원으로 보고 진지하게 지원방향을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해야 하거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진로와 직업교육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이 건전하지 못한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전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상담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복교를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검정고시 지원과 진로교육,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여 자립의지를 고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기에 대표적인 수필 '민태원'님의 '청춘에 찬' 중에 몇 대목을 반추해본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불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라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인생의 황금시대인 청소년기에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며 이를 성취해 낼 수 있는 지원모형은 어떠한가 하는지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도정에 관한 제언

제229회 임시회 / 4차 본회의 / 2013. 6. 21(금)



조영기 의원

교육위원회 / 양구군 선거구

소상공인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소관 법률에 따르면 “소기업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

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그외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로 정의하고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종사자지위별 취업자중 자영업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임금근로자중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합을 자영업자로 사용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OECD기준에 따라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전체를 자영업자로 보기도 하며, 국세청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간이,면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은 2010년부터 매출액 감소를 호소하는 업체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소상공인 대부분이 월 평균 400만원 이하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순이익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고 적자 및 무수입 업체도 17%로 과반수 이상이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순이익 감소 이유로는 “주변 소형업체와의 경쟁심화, 인건비, 임대료 등 원가상승, 주변지역에 대형업체의 출현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원지역은 ‘수요부족 등 기타사유가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업종과 지역에 특화된 교육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기여하며,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상권의 붕괴로 경영실태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강원도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한다. 1) 문제진단 등을 통한 자금운영 방식, 자금지원 제언서 작성법 등 영세 소상공인의 집중 컨설팅 지원이 꼭 필요하다. 2) 대출금액의 상향조정 및 대출조건의 새로운 방법모색으로 우수 소상공인 및 유망 소상공인 업체의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3) 지역특산품의 개발, 지역문화 특성화와 관련한 사업아이템개발 등 지역특성화와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공모제안을 받아 지원해야 한다. 4) 1인 창조기업들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1인 창업비즈니스센터와, 도, 시군,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들간의 정보교류 등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동일)는 제229회 임시회 기간중 6월 12일 회의를 열어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제23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오는 7월 새롭게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배정하여 15명으로 구성되며, 특위구성일로부터 2014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동일)는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영승)는 제229회 임시회 기간중 6월 13일 회의를 열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산림개발연구원 대체 시험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연구부지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연구부지에 인접한 사유지 14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산림소득 연구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했고,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제19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하여 도정발전에 기여도가 큰 19명에 대해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원안 가결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영승)는 6월 13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심의를 위해 산림개발연구원 시험부지를 시찰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남경문)는 제229회 임시회 기간중 6월 13일 회의를 열어 원태경, 조영기의원이 공동발의한「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보다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했다. 또한 6. 17~18일 한국여성수련원과 강원FC(강릉)을 방문하여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선수촌 및 체력단련장 등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김동일)는 6월 13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17일 현지시찰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제229회 임시회 기간중 6월 12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6월 17~18일 타 시도 농림수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비교 시찰을 위해 전라도를 방문했다.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향후 도정 시책 및 정책개발 등 의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 순천에서 개최하고 있는 201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시찰했다.



▲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6월 17~18일 201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시찰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제229회 임시회 기간중 6월 12일 회의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6월 13~14일 (재)철원 플라스마 산업기술연구원(철원), 평화의 댐(화천), 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춘천), (주)일화 춘천GMP공장(춘천), 춘천 전력IT문화복합일반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6월 13~14일 철원 플라스마산업기술연구원 등 도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창욱)는 제229회 임시회 기간중 6월 13일 전국최초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운영 중인 전북 동화중학교를 방문하고, 2013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시찰했다. 또한 6월 18일 회의를 열고 양구군의 원활한 문화예술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감 소유 재산인 양구 고등학교 실습지와 양구군 소유 재산인 도촌초등학교 부지를 교환하는 2013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창욱)는 6월 13일 전북 동화중학교를 방문하고, 6월 18일 동의안 1건을 심사 의결했다.



제2차 IOC 조정위원회 공식만찬



캐나다 크랜브룩시 방문단 강원도의회 방문



인제 서화초등학교 어린이 의회 견학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구자열) 2013 강원도 분권 워크숍



양구 비봉초교 학생자치임원 의회 견학



제2차 IOC 조정위원회 공식만찬



캐나다 크랜브룩시 방문단 강원도의회 방문



인제 서화초등학교 어린이 의회 견학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구자열) 2013 강원도 분권 워크숍



양구 비봉초교 학생자치임원 의회 견학

의 원 동 정



△박상수 의장 = 6월 17일 알펜시아에서 열린 평창동계 올림픽 포럼 행사에 참석, 6월 25일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6·25전쟁 육계지구 전투 승전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유창욱 교육위원장 = 6월 13일 전북 정읍 동화중을 방문, 시설물 등을 견학, 6월 17일 원주 KT리더십 아카데미 대강당에서 열린 제17회 강원도 중등교장협의회 연찬회 개최식에 참석하였다.



△김기홍 도의원 = 6월 5일 중앙라이온스클럽 사무실에서 열린 라이온스 신·구 합동이사회에 참석, 6월 25일 오후 4시 원주 단관 근린공원에서 열리는 무공수훈자탑 준공식행사에 참석하였다.



△김시성 부의장 = 6월 14일 속초시 청호동 갯배마을 경로당 개관식에 참석, 6월 25일 속초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3주년 6·25전쟁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김금분 예산결산특위위원장 = 6월 25일 강대병원에서 강원도자살 예방정책토론회에 참석, 6월 26일 여성가족 연구원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의 성공적 지역정착을 위한 포럼 행사에 참석한다.



△김미영 도의원 = 6월 8일 강릉 라카이랜드 파인리조트에서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환영만찬에 참석, 6월 9일 강릉종합실내체육관에서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였다.



△손석암 부의장 = 6월 17일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탄광지역의 신에너지지대 도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 6월 18일 철암보건지소 개소식 참석하였다.



△오세봉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위위원장 = 6월 18일 알펜시아에서 열린 제2차 IOC 조정위원회 공식만찬에 참석, 6월 26일 강릉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018 스마일 캠페인 행사에 참석한다.



△임남규 도의원 = 6월 17일 태백문화예술회관 열린 '탄광지역의 신에너지지대 도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 6월 22일 태백시국민체육센터 열린 강원도연합회장기 수영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김동일 운영위원장 = 6월 5일 철원 대원본가에서 제48회 강원도민체전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 6월 24일 철원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제18회 농업경영인 철원군연합회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방승일 접경지역발전특위위원장 = 6월 13일 풍산리 산촌체험관에서 열린 제2회 풍산 마을 청포축제에 참석, 6월 15일 군청광장에서 열린 2013군민화합 자전거 대행진 행사에 참석하였다.



△윤병길 도의원 = 6월 14일 남이섬에서 열린 굴러라 감 자원정대 행사에 참석, 6월 22일 봉평장터에서 열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보기운동을 펼쳤다.



△곽영승 기획행정위원장 = 6월 12일 개최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6월 13일 도 산림개발연구원 시험부지의 사유지를 시찰하고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점검했다.



△함종국 송전탑피해대책 특위위원장 = 6월 6일 횡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4회 강원도민 달리기 횡성군대회에 참석, 6월 21일 둔내문화체육공원에서 열린 횡성 둔내 인도교 개통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김양수 도의원 = 6월 6일 남대천 둔지에서 열린 제14회 양양군민 한마음 달리기 대회에 참석, 6월 15일 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양양 명륜중학교 총동문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남경문 사회문화위원장 = 6월 21일 정선 고한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고한여성이용소방대장 취임식에 참석, 6월 20일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였다.



△구자열 지방분권특위위원장 = 6월 15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원주 치악배 배드민턴 대회에 참석, 6월 25일 원주 단관 근린공원에서 열린 무공수훈자탑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곽도영 도의원 = 6월 18일 원주인터볼고호텔에서 열린 양구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참석, 6월 21일 도당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박호동 농림수산위원장 = 6월 22일 고성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역 아동센터연합회 체육대회에 참석, 6월 23일 고성군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러 어린이합창단 창단발단식에 참석하였다.



△고춘석 도의원 = 6월 6일 흥천군청 앞에서 열린 흥천군민달리기대회에 참석, 6월 13일 도 산림개발연구원 시험부지의 사유지를 시찰하고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점검했다.



△김성근 도의원 = 6월 12일부터 개최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6월 20일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였다.



△정재웅 경제건설위원장 = 6월 19일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 강원본부 창립기념 세미나에 참석, 6월 27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법 관련 토론회 토론회로 참석하였다.



△권석주 도의원 = 6월 25일 영월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3회 6.25전쟁 기념행사에 참석, 6월 27일 쌍룡복지회에서 열린 한반도면 경로당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다.



△김양호 도의원 = 6월 24일 삼척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안보강연 및 안보사진 전시회에 참석, 6월 27일 삼척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6·25전쟁 6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최재규 도의원 = 6월 23일 강릉초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뽕마을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에 참석, 6월 27일 강릉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강원도 적십자봉사원 한마음 대회에 참석하였다.



△한금석 도의원 = 6월 22일 철원보조구장에서 열린 DMZ 60주년 평화통일 염원 철원풋살 대회에 참석, 6월 24일 철원공설운동장 제18회 농업경영인 철원군연합회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김세영 도의원 = 6월 13일 전북의 공립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인 동화중학교를 방문하여 간담회 및 시설을 시찰하고, 6월 14일 순천에서 개최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하였다.



△이학년 도의원 = 6월 5일 춘천교대 다산관에서 열린 17개 클럽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6월 14일 남이섬에서 열린 굴러라 감자원정대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영덕 도의원 = 6월 6일 평창읍 현충탑에서 열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제58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 6월 15일 대화초교에서 열린 제44회 평창 대화면민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김현 교육의원 = 6월 13일 전북의 공립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인 동화중학교를 방문하여 간담회 및 시설을 시찰하고, 6월 14일 순천에서 개최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하였다.



△원태경 도의원 = 6월 24일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2013 오늘전'에 참석, 6월 26일 도청회의실에서 열리는 건축미술장식품 심사에 참석하였다.



△이숙자 도의원 = 6월 18일 강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8회 강릉단오제 화대전 시상식에 참석, 6월 24일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청학기 전국여자축구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신철수 교육의원 = 6월 13일 전북의 공립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인 동화중학교를 방문하여 간담회 및 시설을 시찰하고, 6월 14일 순천에서 개최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하였다.



△남만진 도의원 = 6월 13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중국 청각장애인 예술단 초청공연에 참석, 6월 22일 공지전에서 열린 정전60주년 에디오피아 수교 50주년 행사에 참석하였다.



△고진국 도의원 = 6월 15일 내덕초교운동장에서 열린 내덕초교 동문 체육대회에 참석, 6월 25일 영월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3주년 6·25전쟁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최돈국 교육의원 = 6월 13일 전북의 공립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인 동화중학교를 방문하여 간담회 및 시설을 시찰하고, 6월 14일 순천에서 개최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하였다.



△이관형 도의원 = 6월 5일 원주 양구장에서 열린 2013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6월 22일 횡성인조잔다구장에서 열린 제4회 강원도사기 국민생활체육 족구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였다.



△김기남 도의원 = 6월 18일 호반체육관에서 2013 강원도이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 6월 13일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춘천 전력IT 문화복합 일반산업단지 등을 시찰 하였다.



△정을권 도의원 = 6월 5일 인제 원통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24회 면민체육대회에 개최에 참석하였다. 6월 6일 인제실내체육관 광장에서 열린 제14회 인제군민 달리기 대회에 참석하였다.



△권혁열 도의원 = 6월 13일 강릉 단오행사장에서 열린 단오제 씨름대회에 참석, 6월 17일 강원도립대에서 열린 강원도지역 현안관리 심의회에 참석하였다.



△김원오 도의원 = 6월 4일 뉴동해관광호텔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동해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6월 13일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춘천 전력IT 문화복합 일반산업단지 등을 시찰 하였다.



△이문희 도의원 = 6월 23일 원주 부론 남한강변에서 열린 삼도 남한강축제 개최식에 참석, 6월 27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였다.



△김동자 도의원 = 6월 11일 강릉시 중앙로에서 열린 2013강릉단오제 영신행사에 참석, 6월 14일 강릉 단오장 아리마당에서 열린 제20회 어린이 농악경연대회에 참석하였다.



△김용주 도의원 = 6월 15일 춘천농고에서 열린 영서북 지역교육청 친선체육대회에 참석, 6월 22일 춘천수변공원에서 열린 춘천지구 전투전승행사에 참석하였다.



△오원일 도의원 = 6월 24일 동해 YWCA 회관에서 동해 생명 꿈나무 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 6월 26일 정선군종합경기장 체육관에서 제6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였다.



△홍건표 도의원 = 6월 6일 오전 8시 정선공원운동장에서 열린 정선군민달리기 대회에 참석, 6월 12일부터 개최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농림수산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조영기 교육의원 = 6월 15일 양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도솔산 전적 문화제 개막식에 참석, 6월 22일 양구 중앙로에서 열린 다문화가족 차없는 거리공연 행사에 참석하였다.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